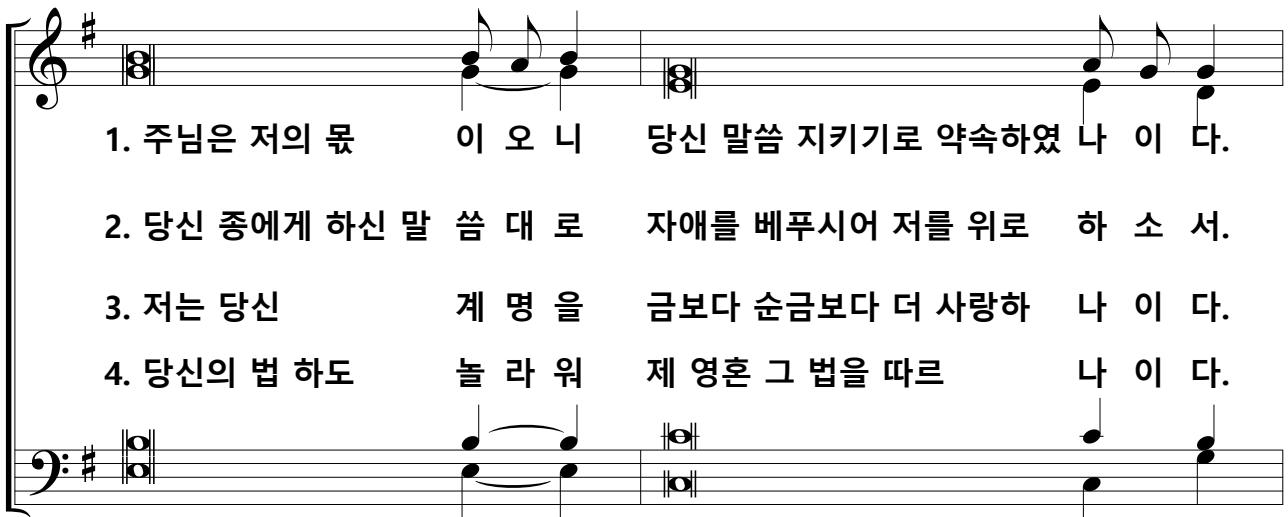


연중 제 17 주일 화답송 [가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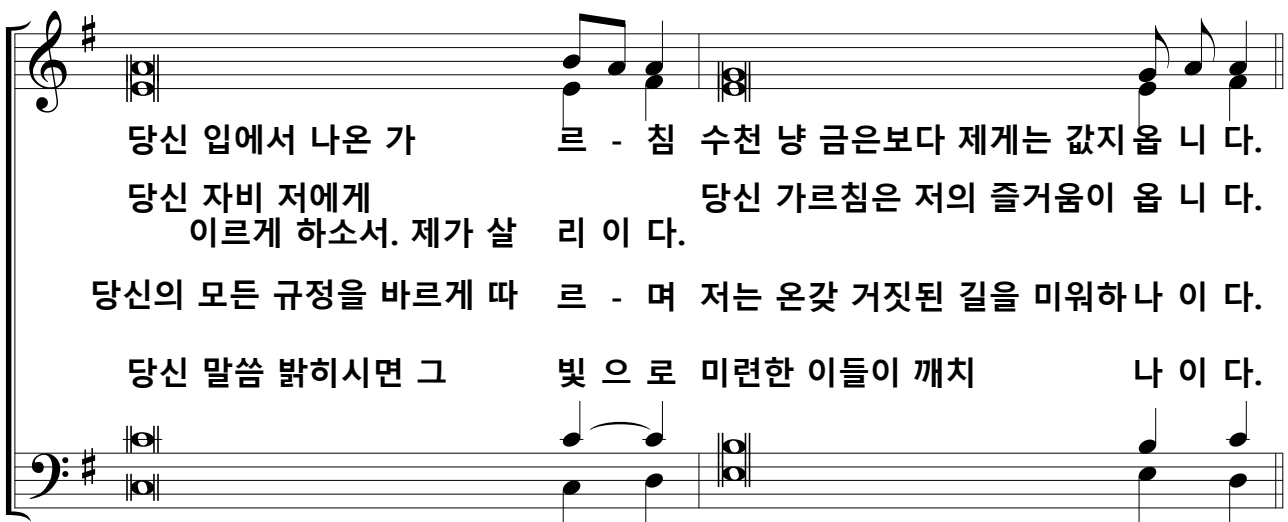
시편 119(118), 57과 72. 76-77. 127-128. 129-130



(후렴) 주 님, 제 가 당 신 가 르 침 을 사 랑 하 나 이 다.



1. 주님은 저의 뉘 이 오 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 나 이 다.
 2. 당신 종에게 하신 말 씀 대 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 하 소 서.
 3. 저는 당신 계 명 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 나 이 다.
 4. 당신의 법 하도 놀 라 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 나 이 다.



당신 입에서 나온 가 르 - 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 니 다.
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. 제가 살 리 이 다.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 옵 니 다.
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 르 - 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 이 다.
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 으 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 나 이 다.

연중 제 17 주일 알렐루야 [가해]

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, 찬미받 으 - 소 서.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 나 - 이 다.